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1. 5.(화) 11:00, (지면) 2024. 11. 6.(수) 조간 배포 2024. 11. 5.(화) 06:00

해양보호구역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열린다

- 해수부, 보성 벌교갯벌에서 제17회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7일(목)부터 11월 8일(금)까지 이틀간 전라남도, 보성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보성 벌교스포츠센터(보성군 벌교읍)에서 '제17회 해양보호구역대회'를 개최한다.

2008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제17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전국의 해양보호구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7개소(약 1,975.952km²)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 해양보호구역(37개소, '24.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19개소)

대회가 개최되는 보성 벌교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는 네번째로 2003년 지정되었으며, 한국 최대의 꼬막 생산지이자 짬뽕어, 갯지렁이 등 310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이다. 2006년에는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랍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순천만갯벌과 함께 랍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의 생명, 해양보호구역 보전! ‘벌교갯벌’에서 출발”을 주제로 ▲ ‘25년 해양보호구역 사업방향 공유, ▲ 보호구역 관리 우수사례 발표, ▲ 해양보호구역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보성 벌교갯벌이 포함된 여자만 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인접지역 4개 시·군(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의 공동관리 협약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지속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이서영 (044-200-5313)



참고 1

행사 세부 일정

시 간	주 제	비 고
<1일차 / 11월 7일(목)> 해양보호구역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		
13:30~14:00	해양보호구역 홍보영상	식전행사
14:00~14:05	참석자 소개	
14:05~14:30	개회사, 환영사	
14:30~14:40	여자만 해양보호구역 영상 상영	
14:40~15:00	여자만(보성·순천·여수·고흥) 공동관리 협약식	시·군 단체장
15:00~15:10	축하공연	
15:10~16:00	명사 특별강연(주제: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배우 박진희
16:00~16:10	휴 식	
16:10~16:20	'25년 해양보호구역 사업방향 설명	해수부
16:20~17:30	- 해양보호구역 관리 우수사례 발표 - '한국의 갯벌' 2단계 추진과 보전방향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방안 - 자유토론	
<2일차 / 11월 8일(금)> 해양보호구역 정화 및 방류행사		
10:30~11:30	- 연안정화의 날 행사(상진항 주변) - 여자만 종자(꼬막, 가리맛조개) 방류	
11:30~13:00	폐회 및 오찬	
13:00~14:30	별교생태공원 탐방 및 행사종료	

제17회 해양보호구역 대회

미래의 생명, 해양보호구역 보전! '보성벌교갯벌'에서 출발

2024. 11. 7. (목) 오후2시
벌교생태공원(벌교스포츠센터 내)

주최  해양수산부 | 주관  전라남도  보성군  KOEM 해양환경공단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벌배어업"

17TH MARINE PROTECTED AREA CONVENTION